

# 제1회 빈곤및 사회통합포럼

워킹맘, 여성의 경력 단절 원인과 진단

오은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참여제고를 위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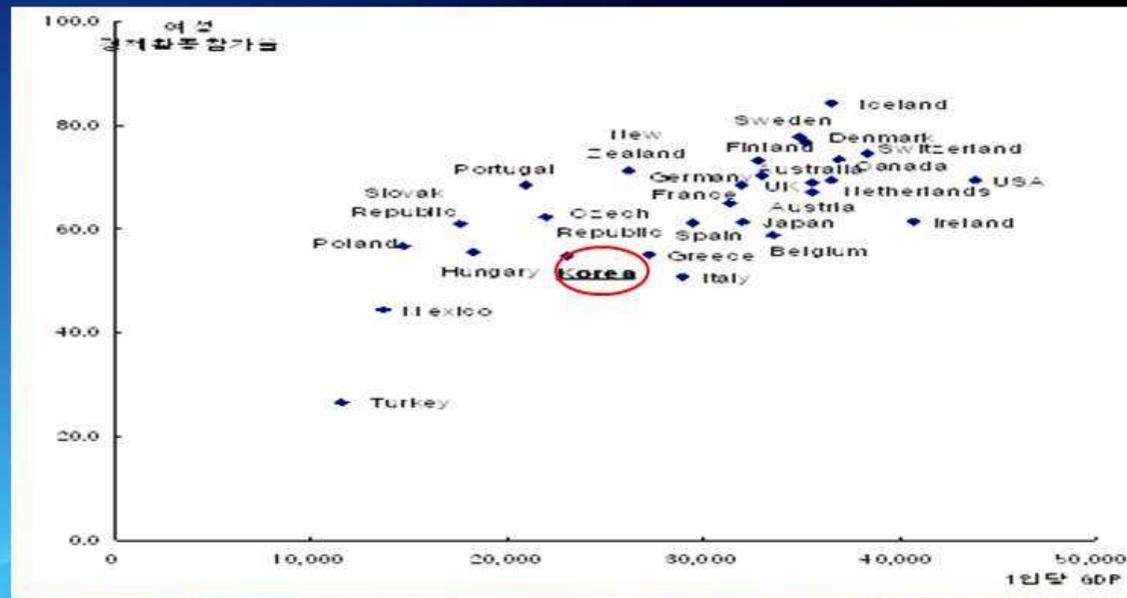
√ 육아 및 보육문제의 해결: 24개월 영아 또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 소득구간과 상관없는 아이돌보미 바우처 제공



✓ 육아와 가사문제의 최단시간 해결  
✓ 24개월 미만 영·유아 보육의 사회화가 핵심적 해결책

## 여성노동시장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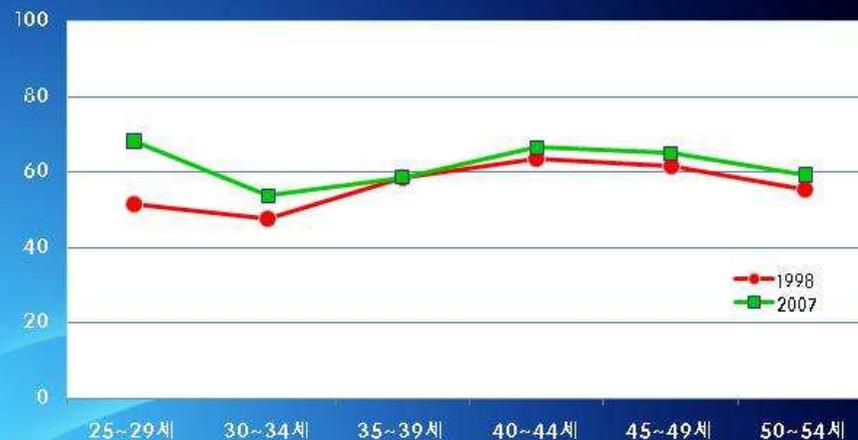
2007년 GDP는 2만 달러 달성, 하지만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50% -> 선진국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경황을 임



## 여성노동시장의 문제

### ■ M자형 모형: 경제활동인구조사(1998:2007)

- 여성 대부분의 비경활사유는 육아, 가사
- 결혼시점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 30대 후반 재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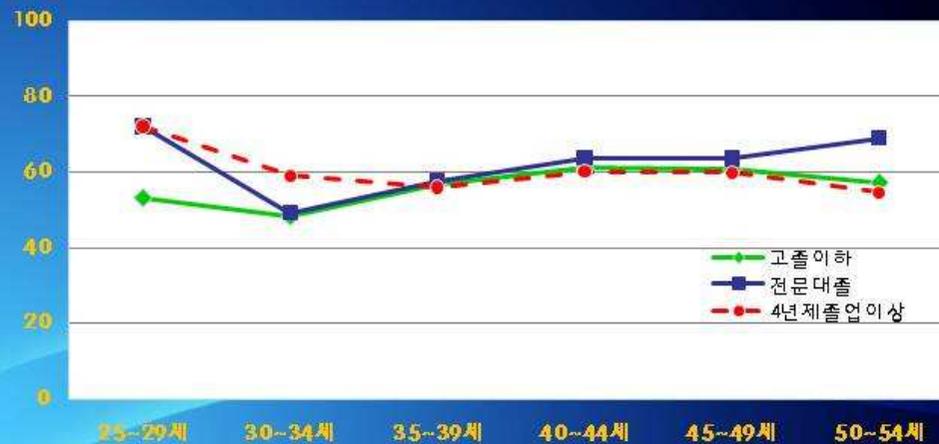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 여성노동시장의 문제

### ■ L자형 모형

- 고학력 여성은 30대 초반에 노동시장 이탈한 후 재진입하지 못함
- 고급인력 유희화의 문제 심각



여성의  
연령별  
학력별  
고용율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 패턴

M Shape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패턴

L Shape

- 결혼, 출산을 주된 이유로 이후에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비율이 38.5%
- 평균 경력단절 기간 5년 이상 51.4% (여성부, 2008)

→ 여성경제활동참여의 제고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확산을 통해 가능

# 미취업 상태의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욕구

## 경력단절의 사유와 시기

### 과거 주된 직장 퇴직 이유

- ① 결혼, 임신, 출산 등의 이유 (38.5%)
- ② 수입이 본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7.5%)
- ③ 일보다는 육아와 자녀교육이 중요해서 (7.3%)
- ④ 건강이 나빠져서 (6.1%)
- ⑤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5.8%)
- ⑥ 결혼, 임신, 출산으로 퇴사하는 회사관행 및 퇴직압력 (5.1%)

\* 기타 (29.7%)

### 과거 주된 직장 퇴직 시기

결혼 직전 또는 그 이후 (45.6%), 결혼 이후 첫 아이 출산 전후 (23.6%)  
둘째 아이 출산 전후 (6.0%), 기타 (24.9%)

## 취업의사 및 욕구

### 향후 1년 이내 취업 가능한 비율

45.3% 현재 즉시 가능 , 54.7%는 1년 이내는 어렵고 향후 취업의 의사가 있음

### 향후 1년 이내에 취업(창업)이 어려운 이유(복수응답)

- ① 가사때문에 (58.2%)
- ② 자녀교육때문에 (33.5%)
- ③ 육아때문에 (32.6%)
- ④ 남편, 가족 반대때문에 (10.1%)
- ⑤ 어떤 분야에 취업하면 좋을지 몰라서 (9.9%)
- ⑥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직장을 찾기 어려워서 (9.6%)
- ⑦ 건강이 좋지 않아서 (6.8%)
- \* 기타 (24.5%)

## 취업의사 및 욕구

### 취업 또는 창업이 원하는 근무 형태

정규직 취업자(47.4%), 자영업자(22.2%), 고용주(13.9%), 시간제취업자(8.3%),  
임시계약직 취업자(3.9%), 특수고용직(3.75), 기타(0.7%)

### 시간제 근무를 원하는 이유: 원하는 시간대 (오전 10-오후 4시까지)

- |                    |                                 |
|--------------------|---------------------------------|
| ① 자녀교육 때문에(34.6%)  | ② 가사 때문에(23.5%)                 |
| ③ 육아 때문에(20.2%)    | ④ 학업, 취미 생활 등 하고 싶은 일 때문에(7.4%) |
| ⑤ 본인의 건강 때문에(6.8%) | * 기타(24.5%)                     |

### 취업 시 희망 임금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결정 요인

선행연구 분석: 쟁점과 한계

학력

- 학력은 경력단절에 부(-)적 영향
- 고학력 여성일수록 기대임금이 높아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가 빠름

취업경력  
(근속연수)

- 취업경력은 재취업에 영향력이 없거나 효과가 미미함
- 취업경력 많을수록 경력단절 확률 낮음

취업경력  
(근속연수)

- 가계소득 많을수록 취업확률 낮음
- 자녀보육형태 : 인척이 돌볼 경우 경력단절 가능성 낮고, 빠른 노동시장 복귀
- 자녀수가 많을수록 취업에 장애가 됨

## ■ ■ 연구의 쟁점

### 선행연구의 한계

- ✓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력단절의 요인에 원인 분석이 다수
- ✓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들의 재취업 과정 및 경로에 대한 연구 미흡

### 연구의 목적

재취업 성공 여성의  
취업경로 및 재취업  
성공요인 분석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도출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실태조사 : 경력단절 이후 취업한 여성**

고용보험에서 추출한  
여성고용의 사업장 정보  
이용한 여성 3,000명

여성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여성 700명

●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욕구조사연구(2008.12월 완료)**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 3,000명

●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 학력, 연령, 자녀수, 가구소득
- 직업훈련 경험, 구직활동
- 경력단절 시점의 임금 및 고용형태(정규/비정규), 기업규모

● 취업 성공 시 어떠한 고용형태(정규/비정규)로 이동했는가?

- 경력단절 여성에게 주어진 일자리의 질에 대한 분석

로짓분석  
(Logistic Regression)

Model 1

취업과 미취업의  
결정요인에 대한  
확률분석

Model 2

정규직 취업과  
비정규직 취업의  
결정요인에 대한  
확률분석

■ ■ 연구의 결과

● 모형 1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의 결정요인: 기술통계

	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연령	6000	20	54	37.2
자녀수	6000	.00	5.00	1.59
학력	6000	1.00	3.00	1.69
log 가구소득(현재임금 제외)	5682	.69	7.17	5.51
가구소득구간(현재임금 포함)	5743	.00	2.00	1.28
경력단절 시 기업 규모	4824	1.00	3.00	2.07
log 경력단절 시 월급	5389	1.61	6.91	4.63
구직활동	6000	.00	1.00	.38
직업훈련	6000	.00	1.00	.08
경력단절 시 고용형태(정규/비 정규)	5160	.00	1.00	.84
경단이유가 육아인지 여부	5550	.00	1.00	.49
취업여부(종속변수)	6000	.00	1.00	.5

주1: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1>에 자세히 기술하고 있음

## 연구의 결과

종속 (취업/미취업)	모형 1		모형 2	
	B (표준편차)	Exp(B)	B (표준편차)	Exp(B)
연령	-.006(.007)	.994	-.051(.008)**	.950
자녀 수	.681(.054)**	1.976	.877(.061)**	2.405
학력(고졸이하)				
초 대졸	.686(.092)**	1.987	.247(.097)*	1.280
4년제 대학교 이상	.439(.095)**	1.552	-.197(.101)	.822
로그 가구소득	-1.130(.088)**	.323		
가구소득 198만원~391만원 (기준변수 198만원 이하)			.198(.172)	1.219
가구소득 391만원 이상 (기준변수 198만원 이하)			1.941(.184)**	6.968
로그 경력단절월급	.503(.069)**	1.654	.224(.072)*	1.251
구직활동	1.546(.076)**	4.693	1.435(.079)**	4.201
직업훈련	.298(.133)*	1.346	.407(.136)*	1.503
경단 시 기업규모(10인 이하 소규모)				
대기업	1.499(.102)**	4.477	1.284(.106)**	3.610
중소기업	1.123(.083)**	3.075	.992(.086)**	2.696
경력단절 일자리 종사상 지위	-.023(.103)	.977	-.071(.107)	.932
경단이유_육아			-.818(.077)**	.441
<b>F</b>	<b>1.699</b>		<b>3.776</b>	
<b>-2 Log Likelihood</b>	<b>55.917</b>		<b>51.618</b>	

\*종속변수는 취업/미취업으로 구분하였음.

\*경력단절 일자리 종사상 지위는 정규(상용직)=1과 비정규(임시직, 일용직)=0으로 구분하였음.

\*유의 수준: \*\*P<.01 \*P<.05

\*육아와 관련한 경력단절 이유로는 결혼 임신 출산으로 퇴사하는 분위기와 압력/안심하고 아이를 맡아줄 시설부족/3세미만 아이 양육할 전담보육자가 없어서/일보다는 자녀교육이 중요해서 등이 있음. (육아와 관련한 경력단절=1그 외=0)

\*모형 1의 가구소득은 취업자의 경우 임금소득을 제외하였음.

\*가구소득구간기준 198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인 가족 차차상위 기준이며, 391만원은 2008년 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임. 기타 가족을 제외한 부모와 자녀수를 고려하여 소득구간을 나누었음.

\*모형 1은 전체 6000명 중 결측을 제외한 4498명을 분석 대상으로 함.

\*모형 2은 전체 6000명 중 결측을 제외한 4576명을 분석 대상으로 함.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의 결정요인

- 연령은 재취업에 - 부적인 영향을 줌
- 자녀 수는 재취업할 확률에 정적인 영향을 줌 (빈곤의 다자녀 가구 여성의 취업확률이 중산층의 소자녀 가구 여성의 취업확률보다 유의미하게 높음): 상호작용효과
- 취업자의 임금의 제외하면 가구소득이 낮을 수록 취업확률이 높음
- 경력단절 시 임금이 높을 수록 재취업 확률이 높음
- 적극적 구직활동을 한 경우, 취업될 확률은 3.7배 높음
-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취업할 확률이 35% 더 높음
- 첫 직장이 대기업, 500-10인 이상의 중소기업의 경우, 1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였던 경우보다 경단 후 재취업 확률이 높음
- 육아, 가사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경우 재취업의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55%정도 재취업 확률이 낮음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의 결정요인

- 구직활동, 직업훈련, 자녀수와 소득 관련, 과거직장 규모, 임금, 중단사유 등이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에 유의미한 영향
  -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은 재취업 확률을 높이는 주요 결정요인
  -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했던 여성이 소기업 종사했던 여성보다 2.6배, 1.7배 취업확률이 높음—모형 2
  - 이전 직장경험, 첫 직장의 중요함을 시사  
그러나 여성의 첫 일자리는 불안정한 상태가 많음(김희삼, 2009)
    - 여성이 비임금근로자로 취업할 확률이 남성보다 3.2% 높음
    - 임금근로자인 경우, 상용직(1년이상 계약) 취업확률이 4.6% 낮음
    - 첫 일자리가 정규직일 확률이 9.1% 낮음
  -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일자리 질에 대한 문제는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
  - 육아, 가사로 인한 경력단절은 재취업 시 걸림돌로 작용함

## ■ ■ 연구의 결과

### ●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근로자의 노동이동 행태

❖ 경력단절 당시의 고용형태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경단시와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의 일자리 이동>

경력단절일자리			경단이후 첫 일자리			일자리 이행율		
종사상 지위	명	%	종사상 지위	명	%	종사상 지위	명	%
상용직	1,676	85.7	상용직	1,275	67.6	상용직	1,178	70.3
						임시직	366	21.8
						일용직	68	4.1
임시직	236	12.1	임시직	512	27.1	상용직	88	37.3
						임시직	131	55.5
						일용직	14	5.9
일용직	44	2.2	일용직	100	5.3	상용직	9	20.5
						임시직	15	34.1
						일용직	18	40.9
합계	1,956	100.0	합계	1,887	100.0	합계	1,887	-

## 연구의 결과

### ●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근로자의 노동이동 행태

〈경단 시 와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 현재 일자리의 임금 비교〉

단위: 만원

	평균	표준편차	중간값	최대값	최소값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	125.9	77.00	110	1000	10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	141.7	79.71	120	1700	25
현재 일자리	150.5	83.81	130	1300	21

●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 구직활동, 직업훈련은 재취업 성공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
- 구직활동을 한 경력단절 여성이 비구직활동 여성에 비해 3.7배 이상 높은 취업확률을 나타냄
- 구직활동/직업훈련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함
-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훈련/구직활동 후 취업하는 경우가 많음

학력별 구직활동/ 직업훈련여부	학력	명	구직활동여부		직업훈련여부	
			유	무	유	무
	고졸이하	869	54.3	45.7	9.0	91.0
	전문대졸	604	54.1	45.9	11.9	88.1
	4년제 졸업 이상	527	60.7	39.3	11.4	85.4



- ✓ 저학력 여성의 직업훈련의 접근성 제고
- ✓ 저학력 여성의 구직활동을 통한 일자리 이동 지원

## ■ ■ 요약 및 정책제언

### 구직활동 외적 장애요인

%		직업정보 제공 부족	정부의 보육서 비스 미비	가족의 가사노동 분담 부족	장애요인 없음	기타	전체 (n=2000)
연령 구간	30대 이하	26.3	24.4	11.4	19.5	18.4	100
	40대	33.8	14.7	13.6	20.5	17.5	100
전체		28.0	22.3	11.9	19.7	18.2	100

### 구직활동 내적 장애요인

%		가사, 육아	나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	장애요인 없음	일자리 정 보부족	학력, 학벌	일자리 경험, 경력부족	기타	전체 (n=2000)
연령 구간	30대 이하	38.7	24.1	11.1	6	6.4	4.9	8.8	100
	40대	27.1	29	12.2	8.5	4.6	6	12.6	100
전체		36.2	25.2	11.4	6.6	6	5.2	9.4	100

■ ■ 요약 및 정책제언

일자리 취업경로

%		가족, 친 지, 친구, 지인	인터넷	신문, TV, 벽 보, 생활정 보지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 곳 직접 찾아 다니면서	취업하고 싶은 일 자리 근무하는 사 람 통해	기타	전체 (n=2000)
연령 구간	30대 이하	36.5	21.1	13.7	10.1	7.5	5.1	6	100
	40대	45.7	10.1	18.2	7.1	8.3	7.1	3.5	100
전체		38.5	18.7	14.7	9.5	7.7	5.6	5.3	100

직업 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 이유

%		자격증을 취득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내용이 전문적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	취업인력수요가 많은 교육이어서	교육기관의 적절 한 취업 지원	전체 (n=2000)
연령 구간	30대 이하	37.6	24.7	22.4	10.6	4.7	100
	40대	40	16	20	16.0	8	100
전체		38.2	22.7	21.8	11.8	5.5	100

## 연구의 결과

### 경력단절 이후 정규직 취업 확률 분석

종속 (정규직/ 비정규직)	모형 1		모형 2	
	B (표준편차)	Exp(B)	B (표준편차)	Exp(B)
연령	.005(.017)	1.005	-.012(.014)	.988
자녀 수	-.073(.075)	.929		
자녀 수 (1명 이하=1)			.173(.102)	1.188
학력(고졸이하)				
초 대졸	.257(.123)**	1.293	.274(.115)**	1.316
4년제 대학교 이상	.308(.133)**	1.361	.307(.122)**	1.360
log 가구소득	.020(.083)	1.020		
가구소득(198만 원 이상=1)			.226(.172)	1.253
자격증	-.203(.104)	.816	-.130(.098)	.878
경력단절기간	-.063(.012)***	.939		
경력단절기간더미 (3년 이하=1)			.552(.116)***	1.736
직업훈련	-.187(.149)	.829	-.249(.143)	.780
기업규모(10인 이하 소규모)				
대기업	.0169(.141)	1.016	-.063(.134)	.939
중소기업	.088(.128)	1.092	.021(.121)	1.021
경력단절 시 고용형태	.1460(.131)***	4.304	1.372(.123)***	3.944
명	2355		2597	
-2 Log Likelihood	2682.206		2962.875	

\*종속변수인 종사상 지위는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로 정규(상용직) =1 과 비정규 (임시직, 일용직) =0 으로 구분하였음.

\*소득은 가계소득에서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을 제외한 소득임.

\*경력단절기간은 경력단절일자리 은퇴시기에서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 혹은 현재일자리 입사시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개월로 계산한 뒤 다시 연도로 바꾸어 변수화 하였음.

\*경력단절기간더미는 경력단절기간이 36개월 이하(=1)와 37개월 이상(=0)으로 구분하였음

\*경력단절 일자리 종사상 지위는 정규(상용직) =1 과 비정규 (임시직, 일용직) =0 으로 구분하였음.

\*P<.05

\*모형 1은 전체 3009명 중 결측을 제외한 2338명을 분석 대상으로 함.

\*모형 2은 전체 3009명 중 결측을 제외한 2496명을 분석 대상으로 함.